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전망 : 임상행정부문

강 경 자 부 장
(고신의료원 간호부)

1. 간호 전문직에 대한 소고

“생김새는 조그마한 네모 책상같은데 두 개의 기계팔이 붙어있는 형태로 환자가 병상에서 “주스를 갖아오라”고 지시하면 책상밑의 바퀴를 굴러 냉장고로 가고, 다시 냉장고문을 연다음 주스통을 들어 한쪽 손에 든 컵에 따라 환자의 입에까지 대어주는 로보트가 있다.” 이는 모일간지에 소개된 간호원 펠콩군의 이야기이다. 즉 로보트로 하여금 간호의 일을 대행 시킬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하는 것처럼 능할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로보트로 하여금 일을 대행시키므로써 인력을 많이 감소시킬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과연 간호의 일을 로보트에게 맡길수 있는 일일까? 물론 아니다.

간호직에 대한 정의를 비간호인인 이종하교수의 가설을 빌리던 첫째 간호직이란 적정한 소득을 추구하는 직업이며 둘째는 여성 직업이 주가되며 셋째 간호직이란 전문적으로서 대학교육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였다. 위의 세 가지설에 대해 우리는 부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간호원은 경제 분야에 공헌하며, 여권 신장에 기여하고 학력 및 연구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호직이 여권신장에 기여한 사실은 간호역사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간호직은 여성만의 직업으로서 유일하게 전문적이었고 여성해방운동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간호교육이고, 어터운 의식속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안겨다 준 것이 간호학 임

에는 틀림 없으나 여성들만이 참여한 직업인고로 다른 전문직 보다 늦은 속도로 발달 되어온 것도 부인 못한다. 즉 남성중심의 전문직 들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앞섰는가? 그러나 이것은 간호원들 자신만의 노력 부족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유교사상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직업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며 현재도 남녀가 동등하게 지적수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 전문직장 여성도 직장에서의 남녀 차이를 느끼는 틀이 1/3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 간호직을 비전문직이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Abraham Flexner의 9가지 전문직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들 자신이 다시 한번 확고한 직업관을 갖고 미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미래의 사회변화

앞으로의 간호원의 위치 변화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미래 사회 과학자들의 2000년대의 사회 변천에 대해 알아본다.

(1) 미래에는 여성들에게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2) 빈번해지는 국가간의 교류로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3) 고도의 산업사회가 점차적으로 더 고도화되어 직업의 귀천은 점점 더 없어질 것이고 여성들의 직업필위가 좁았으나 미래에는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

(4) 발전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교육제도도 평생교육 제도가 되지 않으면 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5)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참여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6) 문명과 기계발전이 인간에게 유익만 갖어 오지 않을 것이다.

이중 몇가지는 간호계에서도 이미 당면하는 과제들이며 특히 미래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곧 닥쳐올 물결들이므로 이러한 미래를 진단하는 지혜가 간호원에게도 필요하며 나 자신을 과소 평가만 하지 말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용기있게 도전할 수 있는 간호직업인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간호원은 하던 된다는 사명감만 있어도 훌륭하게 해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간호는 확고한 철학 내지 직업관이 없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직업에 의해 밀려날지도 알 수 없다.

3. 간호 사업의 변화

미래의 사회변화에서 생각한 것처럼, 간호사업의 변화는 이미 어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도 변화하고 있고 내일은 더 많이 변화 할 것이다. 이는 점쟁이나 마술사가 막연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이론을 세우고 사회의 필요성과 요구에 따르는 필수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즉 W.H.O 건강개념이 이제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가족, 이웃, 국가 그리고 범 세계적으로 다루어 지기 때문에 건강사업의 주축이 되는 간호사업은 변할 수 밖에 없다.

1981년 I.C.N 총회시 미래간호교육자의 역할과 이를 위한 준비에서 김수지 박사의 강연중 미래사회에서 간호영역의 특성을 소개한다.

(1)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컴퓨터화되고 자동화 된 새로운 기계 및 기구등을 많이 사용할 것이며

(2) 1차 건강관리자 대부분 간호원에 의해 제공되고

(3) 간호영역내에 많은 새로운 전문분야들이

생길 것이다.

(4) 미래의 건강관리 체계는 사회적인 변화와 이의 요구에 더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며

(5) 건강관리 체계에서의 간호원의 역할은 의료적인 진단과 치료계획의 기능에서 크게 탈피하여 병원내에서 보다 더 독특한 실무형태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터 하영수 박사의 미래의 간호가 완전한 전문화 Full Professionalization의 수준이 되어야 하며 지도력, 교육 및 연구가 최고 수준의 학력으로 이동 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한다.

4. 간호원 위치의 변화

미래의 간호원 상은 직접적인 간호의 제공자, 상담과 보건교육의 역할자,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 및 지역사회 개발 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수 있어야 한다. 또 하영수 박사의 주제강연에서는 간호원은 완전한 전문가의 위치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했다.

입상에서의 완전한 전문가란 fully knowledge: 완전 무결한 지식 습득자, fully skill or technical: 고도의 기술 혹은 수기자 그리고 fully attitude: 태도나 윤리정신이 최대의 성숙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간호 실무 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간호지도력에 이르기 까지 Full Professional 해야 한다는 것인데 Nurse Generalist에서 Nurse-practitioner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능이나 위치가 미래 간호사업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화 되어야하는데는 교육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적어도 간호원(R.N.)이란 title을 얻으려면 4년제 학사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로 임상행정 면에서 느끼는 것은 병원 사회에서의 의료팀 즉 의사, 간호원, 또는 약사중 유독간호원 만이 Undergraduate degree에서 문제가 있으며, 간호원 누구에게나 basic BS degree가 주어진다던 이들 중 누구라도 더 많은 석사, 박사과정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 현장에

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간호 현장에 나아가 더 많은 책임을 부여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간호직 처럼 도전적인(challenge) 직업도 없을 것이며 간호직 처럼 어려운(difficulties) 직업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한번은 해 보았으면 하는 직업의 위치로 변할 것이며 또 연구 정립해야 할일이 다 전문직에 비해 산재해 있으나, 학문적으로나 실제로 해야할 일들이 고되고 힘든 일이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간호직 처럼 긍지(aspiration)를 갖을수 있는 전문직도 드물것이다. 보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가 몹시 좋기 때문에 또는 화려한 인기 직업이어서 우리가 택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 꼭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상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하면서 우리들만이 느끼는 그 무엇의 기쁨과 희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간호사업을 담당해 낼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겠으며 이러한 개념과 지식과 활동이 계속 연구 개발되어 실제로 적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간호과정이나 문제중심 간호기록 방법이 정말 환자 간호하는데 있어 가장 과학적이고 독자적인 방법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방법을 우리 병원에 적용시켜 모든 간호원이 부담없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dicision making 하고 적용하도록 force or encourage 하는 것은 행정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행정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할 가능성은 간호전문 분야의 전문간호제도입니다.

모든 분야의 간호를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간호원 보다는 특수분야의 간호를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간호원을 계속교육 훈련하여 A병원

에서 외과분야 환자의 수술전후 간호를 전문으로 했던 간호원이 B병원에서도 같은 분야의 일만이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간호실무자, 교육자, 연구자 행정자로서 지적 수준이 고학력이 요구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문제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내직업의 의미가 사사로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다. 간호원의 위치가 완전한 전문가의 위치(full professional)로 되어야 한다는 이상은, 미국사람들이 달나라에 갈수 있었던 꿈을 superman 처럼 날아서 이룬것이 아니라, 도전과 학문적인 연구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야의 사람들이 노력한 땀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을때 우리도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서 로마서 5장 19절 "한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라는 말씀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이러한 변화의 주역을 맡을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종하 "경제학적 견지에서" 재태한 간호
2. 김수지 "간호교육자의역할과 이를 위한 준비" 대한간호 20권 4호
3. 김포임 "간호전문직과 여성" 대한간호 17권 6호
4. 박영신 "전문직업에 대한 태도" 대한간호17권2호
5. 김옥렬 "여성과 전문직" 대한간호 14권 6호
6. 김의숙 "어떤 교육 내용 및 제도" 미래간호교육을 위한 정책 세미나보고서
7. 김모임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병원 간호의 역할" 경희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간호과 학술대회
8. 전산조 "80년대 간호를 내다본다" 대한간호 10권 2호